메시지 6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들

성경: 삼하 7:12상, 14상, 롬 1:3-4, 8:28-30, 히 2:10-12, 고전 15:31, 36

Ⅰ. "내가 …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 삼하 7:12상, 14상.

A.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B. 사무엘기하 7장의 내재적인 의미는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는 것이다.

C. 사무엘기하 7장 14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 — 히 1:5상, 6.

D. 사무엘기하 7장 12절 상반절의 '네 씨'와 14절 상반절의 '나의 아들'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 롬 1:3-4.

E.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함축한다.

F.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어지고 발전된다 — 마 22:41-45, 계 22:16.

Ⅱ.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23절)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33절)라고 말했다.

A.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조상들에게 약속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본다.

B.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일종의 출생이었다.

1.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롬 8:29.
2.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 요 1:18, 3:16.
3. 육체가 되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히 1:6.

C.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1. 바울은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
2.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었다 — 행 13:33.

D.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사람이 되셨다(요 1:14, 18, 눅 1:35). 그런 다음 이 하나님-사람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행 13:33, 히 1:6, 롬 8:29).

1. 육체 되심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인간 본성이 없으셨다. 그분에게는 신성한 본성만 있으셨다.
2.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에게는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도 있으시다.

E.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 벧전 1:3, 히 2:10.

1.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 벧전 1:3, 히 2:10.
2.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또한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 롬 8:29.
3.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 — 벧후 1:4.

Ⅲ.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시는 과정을 말해 준다 — 삼하 7:12-14상, 롬 1:3-4, 마 22:45, 계 22:16.

A.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아들의 자격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롬 1:1, 3-4, 8:28-30, 12:5.

B.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있는 예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의 비밀을 밝혀 준다.

1.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1:18)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에 의해 육체 곧 인간 본성을 입으셨는데, 이 인간 본성은 신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
   a.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다윗의 씨, 곧 하나님의 옛 창조물(옛사람—롬 6:6)에 속한 사람의 씨이셨다 — 골 1:15하.
   b.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다윗의 씨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옛 창조물과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마귀를 멸망시키셨으며,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판결 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셨다 — 롬 6:6, 히 2:14, 롬 8:3, 고후 5:21, 요 3:14, 12:31.
2.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신화(神化) 곧 '아들화'되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신성에서뿐 아니라 인성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 롬 1:3-4.
   a.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롬 8:29.
   b.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분께서 인정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

1) 하나의 씨가 땅에 묻혀 죽는다면, 그 씨는 결국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필 것이다. 왜냐하면 씨의 생명의 작용은 죽음과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요 12:23-24.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영 곧 신성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작용하게 되었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꽃피셨다'.
3)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의 영에 따르면 강하게 되시고 매우 활발하게 되셔서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으로 넣으시어 그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인정되다'의 의미이고, 이것이 아들화되는 것이다 — 벧전 3:18.

c. 그리스도의 인성은 거룩한 영 곧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 인정되고 표시되고 높이 올려져 신성에까지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인성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시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행 13:33.
1)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거듭난 첫 번째 분이셨다 — 롬 8:29.
a)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다. 그분의 인성은 사람에게 속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 수 없고 사람의 아들로 여겨졌다.
b)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인성을 높이 올렸고 그분의 신성을 이 인성 안에 넣었다. 따라서 그분의 인성은 이 부활에 의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분이 되었다.
2) 원형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재생산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이 원형의 지체들이며, 이 지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몸이 된다 — 벧전 1:3.

Ⅳ.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말해 준다 — 히 2:10-11.

A.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곧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에 있다 — 롬 8:28-29.

B.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심어졌다 — 롬 8:10.
1. 땅에 뿌려진 씨처럼 이제 우리도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 요 12:24-25.
2.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되게 하지만, 우리의 속생명은 자라고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꽃피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이다 — 고전 15:31, 36, 고후 4:10-12, 16.
3.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 생명 안에서 변화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
a. 자라려면 우리에게 주님께 돌이켜진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 고후 3:16, 18, 마 5:8, 딤후 2:22.
b. 자라려면 우리는 말씀의 순전한 젖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 벧전 2:2, 히 5:12-14.
c. 자라려면 우리에게 은사 있는 지체들의 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고전 3:6상, 요 7:37-39, 잠 11:25.
d.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한 자아는 허물어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더 큰 기회를 얻으신다 — 롬 8:28-29.

e. 어느 날 이 과정은 완성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게 될 것이다 — 요일 3:2, 롬 8:19, 23, 영한 동번 찬송가 9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64장) 2절.

C.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이러한 부활에 의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 중에 있다 — 롬 8:11.

1. 우리가 인정되고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은 네 가지 주된 방면, 곧 거룩하게 됨과 변화됨과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포함하는 부활의 과정이다 — 롬 6:22, 12:2, 8:29–30.
2. 인정되는 과정의 열쇠는 부활인데,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솟아오르시는 영, 인정하시는 영, 생명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 요 11:25, 롬 8:10–11, 행 2:24, 고전 15:36, 5:4.
   a. 우리는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하는지, 곧 인정하시는 영을 어떻게 누리고 체험하는지를 배워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 롬 8:4, 14.
   b. 그 영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12:3, 롬 10:12, 8:15–16, 갈 4:6.

V.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A.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B. 맏아들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 마 28:10, 요 20:17.

C.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서 인성과 신성이 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이 모두 부활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D.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라고 말한다.

E. 맏아들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대량 생산품이다. 그리스도는 원형과 틀과 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셨다.

F.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지금 성숙의 과정에 있으면서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다.

G.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2절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H. 히브리서 2장 12절에 따르면, 교회는 함께 결합되고 연합된 두 본성과 두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구성체이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